

교육중심 지역 생태계 재편 시동

군산교육지원청,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 선정 학교·마을,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은 2021년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사업정책과 연계하면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혁신교육지구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2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는 전북교육청과 군산시청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육 중심의 지역발전이라는 데 뜻을 함께 한 결과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을 비롯해 군산시의 지역여건과 교육인프라 등 여러 여건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은 마을 은 아이 군산미래교육지구'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교육의 선도적 역할 수행, ▲지역과 함께하는 군산형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교육력 제고, ▲지속가능한 교육자치와 협력체제 구축, ▲마을과 돌봄의 군산형 미래교육지구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

교육사업에 약 150억 원을 지원했고, 군산교육협력지구(특구) 운영을 위해 올해 6억 원, 내년에 12억 원을 대응 투자하기로 협의했다. 구 월명초 자리에 2022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체험교육센터 구축에 24억 원을 대응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군산의 지역여건과 교육인프라 등 여러 여건 분석을 통해 도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은 마을 은 아이 군산미래교육지구'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교육의 선도적 역할 수행, ▲지역과 함께하는 군산형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교육력 제고, ▲지속가능한 교육자치와 협력체제 구축, ▲마을과 돌봄의 군산형 미래교육지구 모델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자체

체가 함께 추진해 나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크게 군산형 특색 교육사업과 지자체 연계 지역특색사업이 있다. 군산형 특색 교육사업에는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군산형 학교혁신 벨트화 사업 ▲마을기반진로활동및자유학년제연계운영 ▲기후변화 위기대응 환경교육 '동행' 운영 ▲군산특색 역사·생태 교육활동 지원 ▲군산형 혁신 학습·학년·학년군 운영 등이다. 지자체 연계 지역특색사업으로는 ▲군산근대역사거리 연계 '관광·교육벨트화'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교육 기부 연계 ▲다함께 돌봄센터와 마을학교의 통합돌봄 운영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공동운영과 일자리창출 ▲마을놀이터 구축 및 토요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동네문화카페와 연계한 교육기부,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이 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체육회, 생활체육 영상 '최우수'

맨몸운동 등 제작 호응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직접 제작한 생활체육 영상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체육회는 코로나19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14개 시·군체육회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영상을 제작·보급했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기획했으며, 연령대(일반·어르신·유소년 등)에 맞는 맞춤형 운동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전북체육회는 양질의 동영상 제작, 도민의 체육복지서비스 향상에 앞장 선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 동영상상을 선정했다. 평가는 영상 조회수와 시청자 만족도, 제작 완성도, 활용 가능성,

창의성 등 엄격하게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진안군체육회가 받았다. 진안군체육회는 ▲가족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운동 ▲공을 이용한 어르신 체육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한 유소년 축구기본기울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다. 또 무주군체육회는 우수상을, 임실군체육회는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우수 평가를 받은 시·군체육회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북체육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리는 과학·발명 꿈나무” |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 전북교육청, 6명 선발

오은송·조재원·오준혁 김보람·김환희·오소연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8일 5층 손님맞이방에서 '제19회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은 21세기를 선도할 과학·발명 분야의 우수 학생을 선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발명 꿈나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과학교육의 진흥과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생 중 과학 및 발명 관련 대회 입상실적과 특기관련 실적 등 2020년 한 해 동안 과학·발명 분야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는 ▲오은송(전주만성초 4) ▲조재원(한솔초 6) ▲오준혁(군산남중 2) ▲김보람(전주서곡중 3) ▲김환희(기전여고 1) ▲오소연(함열여고 1) 등 총 6명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상상과 트로피를 수여한 후 "한 해 동안 과학 분야에서 남다른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전북과학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과학발명 교육 활성화를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 5층 손님맞이방에서 '제19회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대, 초기창업기업 수출지원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초기 창업기업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일대일 화상 상담회를 열어 2만5,000명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이날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6일~17

일 창업 기업인 프로세이프바이오와(쥬위터블, 포레세(FORESE), 시케이 등 4개 업체)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화상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사전에 온오프라인 전시관을 통해 바이어가

관심있는 도내 기업의 제품을 접한 후 화상으로 직접 미팅을 진행했다. 특히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 제품을 전시해 비대면의 한계를 보완했다. 참가 기업들은 행사장에 설치된 화상상담 장비를 이용해 자사의 우수제품을 베트남 현지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통역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출협상을 펼쳤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제18대 교수회장단에 황갑연·유미경 교수

황갑연 교수(철학과)와 유미경 교수(치의학과)가 제18대 전북대 교수회를 이끌게 됐다.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14~15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교수회 회장단 선거를 실시, 선거인 1,034명 중 833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 1번 황갑연·유미경 교수가 422표(50.66%)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갑연 교수가 회장, 유미경 교수가 부회장을 맡아 집행부를 꾸리고, 내년 3월 1일부터 2년 동안 교수회를 이끌게 됐다. 황갑연·유미경 교수는 제18대 교수회를 이끌게 나갈 공약으로 ▲본부의 행정과 정책 전반에 대해 합리적 비판, 견제, 감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교수회 정립, ▲공정한 총장 선거 실현, ▲교수의 교권과 권익 수호, ▲교수의 연구 및 교육 환경 개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소통 실현, ▲교수회 운영의 투



명화 등을 제시했다. 황갑연 교수회장 당선자는 "정명(正名)하는 교수회를 정립하고, 본부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정책 대안 등을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인 교수회가 되겠다"며 "특히 총장선거에 있어 어느 후보에게도 불리하지 않는 공정한 제도와 방식을 도출해 총장 선거가 대외 구성원 모두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취업지원실, 진로포레멘토링 수기 공모 시상

호원대학교 취업지원실은 지난 18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로포레 멘토링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로포레 멘토, 멘티는 지난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유아교육과 외 7개 학부(과) 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학생은 "신입생 때를

되돌아보며 후배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더불어 나도 성장하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로 5년째 계속된 진로포레 멘토링은 교학년 멘토와 저학년 멘티가 1대 1로 연결돼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학기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Jeongeup-si Council